

Leading Jeju for the Future

# JRI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 Policy Issue Brief

2022.01.24 vol **358**

### 주민생애사 구술기록과 문화자원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Leading Jeju for the Future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 Policy Issue Brief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22.01.24 vol.358

발행처 : 제주연구원 발행인 : 김상협

주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 064-729-0500 팩스 : 064-751-2168

제주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 Contents

### 주민생애사 구술기록과 문화자원

- I. 주민생애사 구술기록사업의 중요성
- II. 국외 주민생애사 구술기록사업 주요 현황 및 시사점
- III. 국내 주민생애사 구술기록사업 주요 현황 및 시사점
- IV. 제주지역 주민생애사 구술기록 사업 현황 및 쟁점
- V.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I. 주민생애사 구술기록사업의 중요성

## 01

### 한국사회에서 주민 생애사에 대한 구술기록의 시작과 전개

- 한국사회에서 주민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채록의 시작은 문화연구 등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시작됨 전통의 재발견 및 밑으로부터의 역사에서 시작됨<sup>1)</sup>
- 한국사회에 주민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채록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은 공식 역사로부터 벗어나 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서부터 시작됨 또한 사회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험을 기록하는 데서 그 첫 단계가 나타남
  - 1976년에 발간된 뿌리 깊은 나무는 『숨어사는 외톨박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음 전통의 규범문화에 치이고 외래상업 문화에 밀린 토박이 민중문화에 관심을 가짐 일본말로 동화되는 현실(철공소 vs 대장간, 식당 vs 밥집, 양조장 vs 술도가, 서점 vs 책방, 정종 vs 청주)에 대한 비판적 관심과 함께 내시, 땅군, 풍수, 목수, 상궁 등 민중 계층의 삶에 대한 구술을 채록함
  - 1977년 『월간 대화』 및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청년사, 1984)』,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일월서각, 1984)』과 같은 책자들은 당시의 노동현실을 노동자의 목소리로 담아둠

1) 이에 대해서는 함한희(2000)를 참조할 것

-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더 많은 다양한 시민사회의 욕구를 수용해야한다는 요구를 받음 이런 속에서 권위에 대한 반권위적, 여성주의적 접근이 두 번째 흐름으로 나타남
  - 1989년 제주43연구소가 펴내고 한울이 발간한『이제사 말함수다』는 제주4·3사건 당시의 증언자료집 성격을 지님
  - 1990년 한국현대사료연구소가 발간한 『광주오월민중항쟁자료전집』에는 500여명의 5·18 경험자의 구술채록이 담겨 있음
  
- 세 번째 흐름은 치유적 성격으로 자신들의 삶의 전환을 도와주는 주민생애사 접근이 나타남
  - 재난, 다문화, 디아스포라, 트라우마, 소수민족, 장애, 동성애, 공동체 역사 만들기과 같은 영역에서 더욱 다양해진 시민사회의 욕구가 나타남
  - 2000년에 이루어진 군위안부 이야기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및 한국정신대연구소가 펴내고, 한울이 발간한 『(증언집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은 이 시기 대표적인 구술자료집임
  - 최초의 한센병 환자들을 구술하여 발간한 국사편찬위원회의『한센병, 고통이 기억과 질병대책』과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 이야기를 다룬『자유를 향한 여정, 세상에 내딛는 발걸음』등은 치유적 성격을 지님
  
- 네 번째는 문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문화자원을 만드는 원형 자원으로 여겨짐
  -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은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에 기대는 바가 큼 본 정책 이슈브리프가 주목하는 부분도 이 대목임
  
- 구술기록의 방식은 면담자가 구술자로 하여금 말하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말하기 체험을 경험하도록 하며, 이를 면담자가 텍스트화(문자화) 하고 구술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러티브가 재구성되고 구술자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지님
  
- 한편 콘텐츠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글로벌 비대면 환경을 극복할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따라서 콘텐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산업에 대한 모색은 자원 발굴로 이어지고 있음 콘텐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들은 인간 삶 전반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주민생애사는 주목받고 있음
  - 그런 점에서 주민생애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며, 지역 공동체의 재건에 영향을 주며, 지역 및 국가의 문화 자원으로 활약하는 다층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

## 02

## 한국사회에서 주민 생애사에 대한 구술기록의 의미

- 한국사회에서 주민생애사에 대한 흐름은 몇 가지에서 의미를 가진 첫째 경험과 기억의 기록화를 통해 역사기록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는 점, 둘째 주민생애사의 흐름을 통해 보았을 때, 주민 및 공동체에 대한 치유과정 및 트라우마 극복과 정체성의 재구성, 셋째 역사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넷째, 구술자원이 다양화될수록 이를 자원화하여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해 나가고 있다는 점임
  - 디지털 시대의 문화자원화는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과 기억을 자원화 하여 다수가 공유한다는 점임 그리고 텍스트로 전환되는 경험과 기억은 기록자원으로 전환되면서 미래의 역사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임
  - 주민의 생애사 말하기 과정은 치유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자신 생애사에 대한 재탐색과 정체성의 재구성이 형성됨 이 과정을 통하여 주민 및 공동체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치유되기도 함
  - 한국사회에서 주민생애사는 역사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의 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노동문제, 여성문제, 과거사 문제 등 공식 기록이 갖지 못한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이 기록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동함
  - 오늘날 문화산업의 핵심은 문화콘텐츠 산업이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기술 못지 않게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임 스토리텔링은 알고자 하는 이야기를 플롯(plot), 캐릭터(character), 시점(time line, time point)이라는 구조 속에서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는 모든 문화권에서 교육과 도덕유지, 문화보존과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써 공유되어 왔으며,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단어, 이미지, 소리를 매개하는 장치들의 성장과 확대는 스토리와 내러티브 콘텐츠의 중요성을 이끌고 있음
  - 특히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지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Cloud) 시스템의 확대는 주민 스스로에 의해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의 텍스트화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II. 국외 주민생애사구술기록사업 주요 현황 및 시사점

### 01

#### 미국의 흑인노예 기록사업과 뉴딜정책

-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대공황 이후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나빠져 가자 뉴딜(New Deal) 구호를 내걸었음 이는 그동안 미국이 견지한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접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임
-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재정정책, 은행개혁, 화폐개혁, 구호 활동, 공공 사업, 농업 및 농촌 사업, 실업자 구제정책, 조세정책, 주택정책 등 다양한 분야 뉴딜을 진행하였음 특히 1935년 공공사업진흥국(Work Progress Administration, 1939년 Work Project Administration으로 개칭)이 설립되었는데, 1943년 폐지되기 전까지 8년 동안 104만6000km 이상의 도로, 12만 5000개의 공공건축물, 7만5000개의 다리, 8000개의 공원, 800개의 공항 등을 만들어냄 이로 인하여 대규모 토목공사가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음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뉴딜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우리에게 문화예술분야의 뉴딜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이 기간 동안 공공사업진흥국은 연방예술프로젝트(WPA Federal Art Project), 연방작가프로젝트(WPA Federal Writers' Project), 연방연극프로젝트(WPA Federal Theatre Project), 연방음악프로젝트(Federal Music Project), 연방작가프로젝트(Federal Writers Project)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야 뉴딜 사업을 수행하였음
  - 공공사업진흥국 연방예술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각예술 후원 사업으로 1936년 이 프로젝트의 절정기에는 5000명 이상의 미술가가 고용되었으며, 2560여 점의 벽화, 10만점 이상의 그림, 1만7700여점의 조각, 30만점에 달하는 판화, 2만2000점의 미국 색인 도표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미국의 신예술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연방연극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시민극장 설립 및 공공연극 보급 등과 같은 문화 사업들이 수행되었으며, 연방음악프로젝트를 통해서도 34개의 오케스트라가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콘서트의 개최와 음악교육들이 이루어졌음 이로 인하여 대중들의 문화 소비와 문화 향유 기반이 구축되기도 함
  - 연방작가프로젝트도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메리칸 가이드 시리즈(American Guide Series)'를 제작하였는데, 당시 지역 백과사전 같은 안내서는 지리와 역사, 건축, 민족연구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방대한 아카이브 작업이었음 이 작업을 통해 글 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유명 작가로 성장한 사례들도 많음 대표적으로 『툼 아저씨의 아이들』의 작가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 1908~1960)임
  - 또한 미국인의 문화와 역사 보존을 위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WPA는 노예 신분이었던 2000명 구술생애사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도 수행함 이 작가프로젝트로 6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음 여기에는 1930년대 유명 작가들도 포함됨
- 1948년 역사학 알렌 네빈스(Allan Nevins)의 노력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에 구술사 연구소가 설립됨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 유사연구소가 유행하였으며, 컬럼비아 대학교 구술사 연구소는 미국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8천 개의 녹음테이프를 수집하고 주민들의 생애사 구술 채록을 진행함<sup>2)</sup>
- 이런 문화예술분야의 뉴딜 정책들은 물적 토대가 약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을 구제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후 사회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동하였음 무엇보다 사회 위기 때마다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도 위기 때 오히려 교육 및 문화예술관련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판 뉴딜 수행에도 교육 및 문화예술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sup>3)</sup> 그 중에서도 주민생애사는 구술기록 작업은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음

2) 네빈스(Nevins, A 1996) 참조할 것

3)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firstPage>)에서 참조 가능함

## 02

# 영국 브리티쉬 라이브러리 사운드 (The British Library Sound Archive)

- 1955년 영국 녹음 자료실(the British Institute of Recorded Sound)로 개소하여, 1983년에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 편입, 약 백만 장의 디스크와 185,000여개의 테이프를 포함하여 여타 음향과 영상 자료 소장  
- 약 350만개의 아카이브소장 목록 및 매일 업데이트, 이 아카이브와 연계되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NLS(National Life Stories) 1987년에 설립, 구술사와 생애 이야기를 직접 수집함  
- 이 구술사 수집은 건축, 예술, 작가, 금융, 디자인, 사회복지, 음식, 패션, 산업 등 매우 광범위하게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또한 수천명의 인터뷰를 관리하는 도서관 구술사 사이트가 별도 마련되어 있음 또한 유럽연합(EU)국가 안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1973년 폴 톰슨(Paul Thompson)을 중심으로 Oral History Society 라는 구술사 연구학회가 결성 톰슨의 '과거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Past)'는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포함 구술사 연구 집대성한 고전적 저작<sup>4)</sup> 그로 인한 영국 주민구술생애사 확산 현재 주민구술생애사를 기록하는 주요 구술아카이브 기관이 30여개 임
- 이런 구술자원은 영국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떠받드는 근간이 되고 있음 또한 1980년대 공동체의 위기 때, 지역 도서관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음

## 03

### 기타

- 호주 National Directory of Australia's Oral History Collections  
- 1992년 호주 내 민속자료, 구술사, 개인이나 단체가 수행중인 프로젝트 하나의 목록으로 수립 1993~1994년 9인의 구술사 목록 위원회(Oral History Directory Committee)가 설립되어 구체적인 사업 실행

4) Paul Thompson, Edited by Robert Perks and Alistair Thomson(1998), The oral history reader 참조



- 디렉토리는 약 460개 분야의 자료에 대한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도서관 소장의 30,000시간 분의 녹음 자료 오스트레일리아 국립영상음향아카이브를 포함한 여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1,000시간 분량의 자료 지방 정부나 지방사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소장하고 있는 약 200여 가지의 자료 회사나 학교, 종교 단체 등이 소규모 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원주민 집단이나 공동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26개의 오스트레일리아 대학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약 60여개의 개인 소장 자료 등임

#### ○ 독일 함부르크 주민구술생애사 아카이브 운동 전개

- 1980년대 이래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서는 주민 구술 생애사 아카이브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독일 함부르크대학 현대사연구소 구술아카이브팀은 구술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주민 스스로가 생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기억 속에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며, 삶을 돌이켜보는 과정이 현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만들고 규정하는 성찰과정임을 강조함(린데 아펠, 2003)

## 04

### 시사점

- 국가공동체의 정신적 및 물질적 자원으로서 주민생애사를 가장 기초적인 자원으로 다루려고 함 또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겪는 개인 및 공동체 정체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로서 주민생애사에 접근함
- 경제 위기 및 사회변동기에 일반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 일자리 창출로서도 접근함
-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회의 자원 및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자원으로 바꾸려는 순환구조를 만들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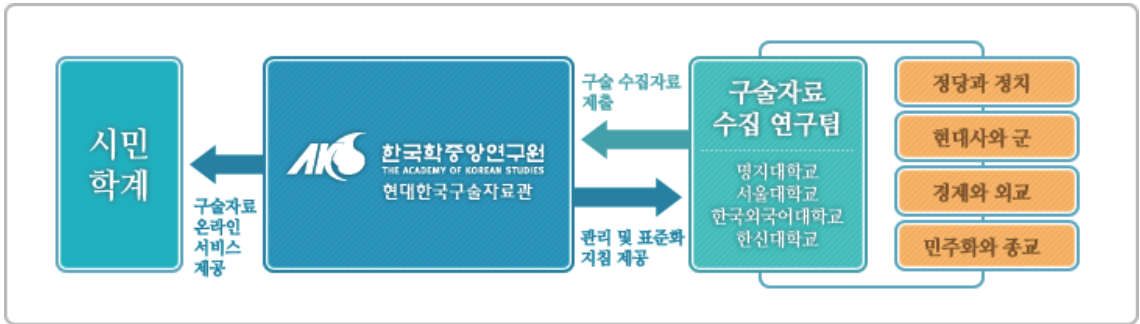
### Ⅲ. 국내 주민생애사 구술기록사업 주요 현황 및 시사점

#### 01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연구 10년

- 2009년부터 2019년 지난 10년 기획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현대 한국 구술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현대한국구술자료관(<https://mkohaaksackr/IndexMaindo>)을 온라인에 구축함 이 기획으로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물생애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역동적 변화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함5)
  -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 한국의 민주화·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중적으로 서비스하여 역사 연구와 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사업은 정당정치, 한국군, 경제외교, 종교와 민주화에 관련된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4개 연구단과 구술 자료 아카이브와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1개 연구단, 총 5개 연구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구술 자료 수집 사업임
  -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은 구술 자료 아카이브와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며 4개 수집 연구단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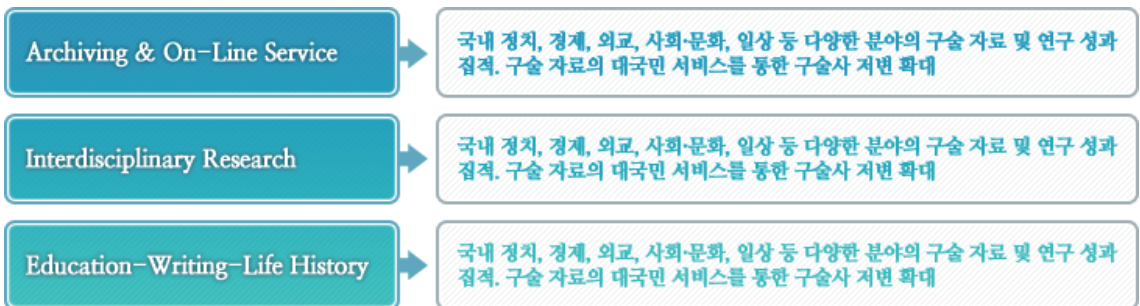
5) 공공기관에서 구술사 사업의 시작은 200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였음



※ 자료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 | 그림 1 | 현대한국구술사연구 사업 역할 구성

-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축 연구는 구술사에 관련한 종합적 연구 기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사업임
  - 구술 자료 수집·아카이브·교육·연구 및 구술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연구 목표와 방향성을 가짐



※ 자료 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 | 그림 2 | 현대한국구술사연구 사업 역할 구성

- 연구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구술 자료 아카이브 및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
  - 지속적인 구술자료의 집적 및 집중과 체계적인 서비스 기획
  - 구술사 교육을 통한 구술사 저변의 확대 등임
- 이 구술자료관은 377명의 2695개의 구술사 자료가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음

**[표 1] 한국학 중앙연구원 현대구술자료관 구축 자료**

연번	구술분야	대표 구술자
1	정당정치	김태식, 김영도, 이상희, 김혜경, 이 철, 조광희, 김윤덕, 김낙중, 김동주, 변정일, 김중위, 이신범, 이부영, 이문창, 이범준, 윤홍오, 이기택, 현경대, 김창환, 최순영, 서경원, 홍재형, 조부영, 김종하, 이호웅, 목요상, 김수한, 이윤기, 이 협, 박상기, 이민섭, 신경식, 류인학, 조희선, 류지영, 김충현, 김영동, 강성원, 한광옥, 김원길, 윤석순, 김원웅, 정인식, 김원기, 유준상, 신상식, 이규정, 허경만, 정창화, 신순범, 이창복, 홍사덕, 배다치, 박석무, 최용식, 김윤덕, 김경진, 류갑중, 윤재명, 서태원, 김정남, 김현규, 전대열, 장호권, 조성우, 임방현, 유응근, 최종명, 임인채, 최돈웅, 마달천, 김영옥, 강상욱, 김삼웅, 정대철, 오세웅, 안동준, 송방용, 한병채, 최종성, 이택돈, 성낙현, 박영록, 류제연, 나석호, 김용성, 김상연, 이문영, 예춘호, 김옥선, 복진풍, 서경석, 주돈식, 장경순, 구범모, 임재경, 장기표, 이천재, 문태준, 백영훈, 김명윤, 노승환, 공정식, 김두현, 전정규, 김용채, 김재춘
2	경제외교	국중하, 김흥기, 채영복, 안병찬, 이준식, 강병원, 손운택, 신홍순, 김만율, 이강두, 음용기, 박영복, 고일남, 장상현, 황병주, 권기태, 배전운, 김태승, 이수웅, 최영환, 김기인, 소재오, 정수도, 서정욱, 이동훈, 유철진, 이종빈, 이기주, 차상필, 구상희, 장병선, 이은직, 김형근, 위성용, 조경식, 신명호, 강경식, 김재관, 김재만, 이충구, 이춘화, 신동식, 한재열, 윤정우, 유영준, 안응모, 이용일, 전상진, 김기태, 김재철, 정명식, 박홍식, 최용은, 조인제, 정해룡, 차상필, 신국환, 박승엽, 엄길용, 구지영, 문기상, 최창락, 정태승, 박종근, 이종례, 홍성좌, 차화준, 이만용, 전계묵, 고병우, 윤석규, 백영훈, 전상진, 이기흥, 윤석현, 양윤세, 박철규, 박성상, 김용환, 권원기, 강신조, 최호중, 하사용, 김재식, 정근모, 남덕우, 김광모, 남욱, 오재희, 이희일, 박진환, 이승윤, 이규성, 하영순, 김말자, 김기형, 김태지, 이응선, 윤하정, 신동원, 황병태, 최각규
3	민주화와 종교	김동수, 여익구, 정상시, 김치운, 안성례, 박종렬, 박종화, 김성훈, 일면(황일면), 서광선, 이준모, 성타(이충웅), 가산(손성수), 무여(윤광오), 이호택, 김재홍, 박경준, 류연창, 김지선, 김상집, 효림(임종율), 김상근, 이해학, 이해동, 황인성, 김병균, 법타(신광수), 이광일, 손규태, 권진관, 권오성, 배영진, 홍파(이무용), 최병상, 배종열, 배정섭, 명성(전임호), 백숙자, 박남수, 박상도, 연담(진재일), 나상기, 정의행, 이미경, 문동환, 지선(최형술), 이삼열, 묘엄(이인순), 함세웅, 오재식, 월탄(유찬수), 이선주, 박경서, 조화순, 권호경, 박상중, 박형규, 인묵(이상길), 월운(김성구), 이문영, 신규탁, 정원(조철규), 여연(유봉), 이희선, 청화스님, 김응복, 권호경, 전보삼, 최연, 진관(박용모), 전재성, 이영숙, 이상철, 안재웅, 윤순녀
4	한국군	김영동, 채대석, 채명신, 김학옥, 한응원, 제정관, 양창식, 신위영, 강홍건, 김계원, 최순창, 정성길, 유보선, 박돈서, 정영주, 김영균, 문영일, 최갑석, 전도봉, 김창규, 윤찬중, 안상정, 전제현, 서경석, 정규호, 전일규, 라동원, 백행길, 배상호, 김중면, 김춘배, 노영서, 유병현, 차수정, 구문공, 전자열, 홍대식, 홍기경, 최우식, 최규순, 김세창, 이승일, 김중실, 김사열, 강신항, 김점근, 장경순, 김제민, 정규섭, 서영훈, 박정인, 배상호, 박종병, 광병울, 김영환, 화의선, 이돈석, 현재복, 김운용, 장익열, 홍대식, 박영은, 이재룡, 최경일, 이서근, 장정열, 강제승, 문인순, 유재완, 임상빈, 황헌천, 장우주, 박윤진, 김재춘

5	건국 60년	-
6	원폭의 기억	-
7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정갑수, 김승민, 곽수광, 윤은주, 권문수, 정근 김영운, 권재일, 한용문
8	주변부 여성의 경제활동	-
9	한미 민간 교류	-
10	국가폭력	김광호, 양득승, 나정태, 김하중, 최동석, 김달호, 강창덕
11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

※자료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 구술 자료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만드는데 기여함
- 이런 구술축적의 경험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축 연구단은 구술사 시민강좌를 개최함 이 강좌를 통하여 시민기록의 시대를 열어감

## 02

###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단

- 20세기 한국민중의 생활을 기록하고 해석하여 민중생활사의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를 내세우고, 아울러 이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인문학을 정립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됨
- 2002년 7월 한국연구재단(옛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단에는 기존 학문의 경계를 허문 인문학계의 연구진 100명이 참여, 5년간 작업이 이루어짐
  - 문학 및 예술계의 원로, 영상기록 전문가, 국외 학자들도 참여
  - 영남대에 본부를 두고 목포대, 전북대, 중앙대 등 전국 4개 대학 6개 연구소가 참가
  -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일본큐슈대학 등도 참여
  -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기본 목표는 20세기 민중생활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문자와 음향, 영상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해내는 일임

- 2006~2007년에는 동시대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역사처럼 기록한 민중자서전을 발간함
  - 2006년 『민중구술열전』 15권
  - 2007년 『한국민중구술열전』 13권 및 『사진으로 기록한 이 시대 우리 이웃』 3권
  - 한 남편과 산 두 할머니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친자매처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담은 '윗 마을의 두 아낙네'를 비롯하여, 공식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선정함
  - 한편으로는 농부, 버스차장, 뱃사공, 하역인부, 거리의 약사 등 직업군을 선정하여 사라져가는 생활사에 대한 기록을 수행함

## 03

### 부산광역시

- 한국사회의 주민생애사 구술기록은 마을기록화 사업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광역시에서 나타나는 주민생애사는 마을기록화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들이 종종 보임
- 2014년 부산학은 마을과 구술생애사를 연결하는 작업들에 관심을 갖고 주민 생애사에 접근함
- 2009년 이후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요 연구기관 및 문화원 등에서 제작한 구술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표 2 | 부산광역시 주요 기관 구술자료**

번호	발행년도	제목	주제	발행처
1	2009	김진홍의 삶과 예술	춤꾼 김진홍의 생애사와 예술가로서의 삶	국립부산국악원
2	2010	청화당 김온경의 삶과 예술	춤꾼 김온경의 생애사와 예술가로서의 삶	국립부산국악원
3	2011	문장원의 삶과 예술	춤꾼 문장원의 생애사와 예술가로서의 삶	국립부산국악원
4	2011	이향(離鄕)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 사람들	아미동 마을 생성과 역사에 대한 기록	부산구술사연구소

번호	발행년도	제목	주제	발행처
5	2013	부산 밀면 이야기	밀면의 역사성을 살펴봄	임시수도기념관
6	2014	우암동 사람들의 공간과 삶	우암동의 생활사와 구술자료	임시수도기념관
7	2015	낮선 이방인의 땅-캠프 하야리아	미군주둔지에서 시민공원으로 돌아온 캠프 하야리아의 역사와 부산의 도시생활사를 살펴본 학술 연구서	임시수도기념관
8	2016	보수동 책방골목의 공간과 사람들	한국전쟁을 전후 보수동 책방골목의 탄생배경과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 조사	임시수도기념관
9	2016	부산 원양어업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구술자료	부산시
10	2016	부산 동구에서 삶을 오롯이 이바구하다	오롯이 프로젝트로 동구 주민 18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부산 근현대사 조명	동구
11	2016	마을을 기억하다: 흰여울문화마을 주민대백과	부산 영도의 현재 흰여울문화마을로 알려진 이승도마을주민 20명의 마을사와 생활사	영도구청/영도문화원
12	2017	(구술로 풀어낸)신발의 도시 부산 그 속에 숨은 이야기	부산의 신발산업이 전성기였을 때 종사했었던 시민들의 기억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13	2017	청사포에 해녀가 산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해녀들의 삶과 물질 이야기	빨간집
14	2018	기억의 소환, 광복동을 말하다	광복동 일대의 역사적 흐름과 공간적 특성 및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에 대한 조사	임시수도기념관
15	2018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	감전동 사람들의 생활사 관련 구술자료 수록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6	2018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학장동 마을의 생활사 및 주민생애사 관련 구술자료 수록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7	2018	1904, 흐르는 섬 가덕도	부산의 외진 섬인 가덕도 주민 구술	강서구
18	2018	당감 : 당신을 기억하는 감성 기록 프로젝트-당감 행복한 마을 주민 인터뷰집	피란민, 신발공장, 당감시장 등 당감동 마을의 역사를 주민들의 이야기로 기록	부산진구

번호	발행년도	제목	주제	발행처
19	2019	덕밭골 사람들 이야기	덕밭골 마을의 생활사 및 주민생애사 관련 구술자료 수록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	2019	매축지 마을 사람들 이야기	매축지 마을의 생활사 및 주민생애사 관련 구술자료 수록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1	2019	아미동 비석마을 사람들 이야기	비석마을 공동체 생활상 및 생애사 관련 구술자료 수록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2	2020	부민동의 역사와 공간	피란수도였던 부민동의 역사와 공간적 특성에 대한 조사	임시수도기념관
23	2020	100년의 한(恨)숨을 쉬다-외양포, 대항마을 사람들 이야기	외양포·대항마을 공동체의 생활사 관련 구술자료 수록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4	2020	400년 자연마을의 근대화 풍경-임기마을 사람들 이야기	임기마을 공동체의 생활사 관련 구술자료 수록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5	2020	주민의 기억으로 담은 이야기 재송(裁松)	농촌사회에서 도시화되는 과정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으로 담은 이야기	해운대 문화원
26	2021	사소한 기억, 어쩌면 모두의 이야기	부산 거제4동 마을기록화 프로젝트	연제구

## 04

### 경기콘텐츠진흥원 문화뉴딜사업

####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중소콘텐츠 기업과 프리랜서 위한 문화 뉴딜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01년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영상, 음악 등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융복합 콘텐츠 산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육성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은 책 생태계 활성화, 만화-애니메이션-영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경기국제 웹툰페어 개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등이 있음



– 시대별 콘텐츠 산업의 기초가 바뀔에 따라 새로운 장르의 등장과 콘텐츠 생태가 변화가 가속화 됨 독립출판, 독립영화, 인디뮤지션, 인디 게임 등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을 비롯하여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 시기 중소 콘텐츠 기업과 창작들을 위해 문화뉴딜사업 전개의 일환으로 추진

-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의 여성, 독립운동 등 지역특화스토리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스토리 특화 사업은 구술을 전제로 함

## 05

### 기타

- 서울도서관
  - 2016년 서울도서관은 '구술사란 무엇인가-구술사 기획에서 활용까지'란 주제로 「구술사 시민강좌」를 개최함
- 국가기록원
  - 2008년 국가기록원은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 경험과 생애 등을 구술채록하는 사업을 추진함 대통령기록관 출범 이후 대통령들이 공식 기록물로 남기지 못한 주요 활동이나 사건, 성장과정 등 개인적인 생애경험이나 소회 등을 직접 구술을 통해 국가기록으로 보전함
- 서울학 연구소
  - 2000년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는 개인생애사와 마을 단위의 역사를 접목시킨 『주민생애사를 통해 본 20세기 서울 현대사』 발간함
- 완주군 화산면
  - 완주군 화산면 상호마을공동문화조성추진단에서는 화산면 버머리 마을 주민 40여명의 삶을 기록한 『주민생애사 버머리 사람들』 출간함

### ○ 거제도

- 2021년 거제시 도시재생신문에서는 매월 〈주민생애사〉를 게재 거제 지역에서 생활하며 살아오는 주민들의 이야기 수집
- 2021년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일환으로 주민생애사 기록 및 아카이빙 함

### ○ 전남문화관광재단

- 2017년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사라져가는 섬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생활문화예술을 재조명하기 위해 섬 주민 생애사 채록 및 『섬의 생애사』 발간

### ○ 각설이 품바보존회

- 2017년 각설이 품바보존회가 엮은 『각설이 품바마을 무안 일로지역 주민생애사』 발간
- 이를 기반으로 무안 일로품바를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 있음

### ○ 강원도 정선문화원

- 2019년 정선문화원은 사라져가는 탄광촌 향토문화자료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구술생애사 기록 작업

### ○ 안동시

- 2019년 안동시에서는 안동댐 수몰마을 기록화사업을 추진, 안동댐 수몰민 구술생애사를 실시 9개마을 106명 구술 채록집 『안동댐 수몰마을 주민대백과』 발간

### ○ 미디어 오늘

- 미디어 오늘은 〈이주민 생애사〉연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생애사를 통해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조명

### ○ 인천광역시

- 인천 도원역의 숨어있는 벽화마을 '생애사길'을 가다 활용 주민들의 생애가 담겨 있는 길, 삶의 모습이 소소하게 담겨 있는 길을 콘텐츠로 육성

### ○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 연구를 통하여 주민생애사 구술을 기록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남

- 음식구술사를 통해 현대 한식의 변화를 5인의 이야기로 구성한 『음식구술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19)』도 있음
- 과천시도시의 주민 되기-구술 생애사를 통한 지역정체성 형성 분석 등

## 06

## 시사점

- 이런 주민 생애사를 통하여 얻는 것은 그들의 중요 경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경험한 시공간과 행위에 대한 것임 달리 말하면 그들이 경험하였던 공간 예를 들면, 길, 장소, 건축 등이 포함되며, 행위적으로는 의식주, 의례/민속 생업, 육아, 역사적 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것들은 자기 경험의 원풍경을 형성하며,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원풍경을 형성하기도 함
- 주민생애사는 민간 영역에서 공공 기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현재 주민생애사 수집은 개인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문화재단, 지방 정부 등에서 주도되고 있으며, 방법론도 다양해지고 있음
- 또한 주민생애사를 역사문화자원으로 가공하여 공동체의 재생 및 문화산업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 IV. 제주지역 주민생애사 구술기록 사업 현황 및 쟁점

### 01

#### 제주4·3관련 주민 생애사 기록

- 1989년 제주4·3연구소는『이제사 말함수다』 등을 통하여 4·3에 대한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담음
  - 이때는 주민생애사 보다는 4·3진상규명을 위한 증언사에 가까운 측면을 가진 당대에는 주민 생애사라는 말이 일반적이지 않은 때라, 증언을 구술채록하는 수준임
- 2018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기억의 책 제주4370』을 기획 발간함
  - 『기억의 책 제주4370』은 50명의 제주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임
  - 80주년에는 구순이 넘어가는 생존희생자들과의 만남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임을 밝힘
  - 또한 생존희생자와 가족에게 감동적인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 대대로 이어지는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힘
  - 글 마무리에는 이런 문장이 있음 “지난 시대에는 족보와 제사로 가풍을 기억하였지만, 이제는 당신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에 후손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며 우리 가족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갑니다” 가 적혀 있음

**표 3 | 『기억의 책 제주4370』 주민생애사 목록**

연번	제목	저자
1	신뢰를 쌓은 삶	강술생
2	아홉 개의 마음 그릇	현정자

연번	제목	저자
3	자신을 돌아보길 당부하며	오태경
4	욕심없이 나누는 행복	부민자
5	곤밥 한 숟가락	김옥자
6	시간을 초월한 위로	송승문
7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박부만
8	큰 별이 된 그대	이대진
9	계란, 문밖 고생한 애기जू	김순홍
10	적어둘 수 있었다라면	이문자
11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이다	김병현
12	조들지 마랑 쉬멍 가라	강지추
13	체탕 속의 운동화	김대길
14	살아있다 갑자생	허봉역
15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고영자
16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채계추
17	할 도린 다행 살아수다	홍순공
18	진실을 바로 세우는 기억	현부자
19	나의 업(業)을 돌아보며	서근숙
20	황혼이 물들어 노을이 되었네	김수생
21	나는 엄마입니다	이 인
22	해원解冤과 상생	이재후
23	내 공향 송당리	김윤홍
24	쉐(牛)로 못 나난 여자로 낫जू	좌갑수
25	바른 장사꾼 고씨 이야기	고연경
26	바다의 딸 해녀로 살다	이매춘
27	나 고를 말 잊주게	홍춘호
28	어미니의 플레이볼	문철부
29	恨맺힌 4·3사건과 봉아름	고한구
30	견뎌오니 삶이 되었다	현춘조
31	생의 고비고비마다	김명립

연번	제목	저자
32	이 아픈 역사 나로 끝이 나길	김평강
33	애기집광 메역짐은 베어도 안 내분다	고계순
34	살아온 생의 길목	김윤아
35	늪으니 벗이 그리워	허을봉

## 02

### 소도리네트워크

#### ○ 2016년부터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소도리네트워크는 라디오 자서전을 진행

- 팟 캐스트로 제작되는 어르신 생애구술 방송 '라디오 자서전' 진행으로 주민들의 목소리 기록화 2018년까지 15명의 어르신들의 생애사를 기록함
- 소도리는 제주도 방언으로 소문을 의미함

**| 표 4 | 소도리네트워크 라디오 자서전 주민생애사 목록<sup>6)</sup>**

연번	성 명	거주 마을	주제 및 내용	년도
1	현옥자	-	마라도에서의 삶	2016
2	김신출	-	가난한 삶의 질곡에서 생을 연명하던 사연과 후손에게 전하는 말	2016
3	김행구	조천읍 신촌리	43과 한국전쟁, 산업화 격동의 시기 속 삶	2016
4	이성지	-	일제강점기 해방 후 한국전쟁 속에서의 삶	2016
5	이인희	-	교사 생활기	2016
6	김안길	표선면 토산리	일제 강점기, 중산간에서 43사건 경험기, 어린시절 놀이 등	2016
7	김동수, 김양수	남원읍 의귀리	김만일 후손으로서의 삶	2016

6) <https://www.podbang.com/channels/11717?ucode=K-whTBkheB> 참조하여 정리함

연번	성명	거주 마을	주제 및 내용	년도
8	부민자	제주시 아라동	삶의 박복함과 7남애 양육사	2016
9	현 미	-	소리꾼으로서의 삶과 생애	2016
10	김애주	남원읍 태흥리	홀로 물질과 밭농사를 하면서 6남매를 키운 삶	2017
11	오태경	표선면 가시리	4☒3사거 시기 생애사	2017
12	김천혜	한림읍 귀덕리	여성의 파란만장한 생애사	2017
13	정영필, 현재복 부부	-	일본과 성산읍 고성리와 온평리를 오가는 삶	2017
14	김순화, 우영심	우도면 오봉리	해녀의 삶과 인생이야기	2018
15	양대호	대정읍	태양철학관 운영과 운에 대한 이야기	2018

- 그 외에도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주지역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색깔 있는 인터뷰와 김대호가 만난 사람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표 5] 색깔 있는 인터뷰 목록**

만난 사람	번호	주민	주요 경험	년도
색깔있는 인터뷰	1	안혜경	아트스페이스씨 대표	2016
	2	현 미	소리꾼	2016
	3	문종태	리본제주이사장	2016
	4	신대장	서귀포시 활동대장	2016
	5	김지환	어서요 대표	2016
	6	저스트쉬림프 홍보팀장	오션스위츠호텔 식료팀	2016
	7	홍민아/문신기	문화예술기획자 방송프로그램 진행자	2016
	8	강경환	제주속에 세계 사우스카니발	2016
김대호가 만난 사람	1	김진한	농민과학자	2016
	2	백신옥 김국상	강정평화운동과 결혼	2016
	3	김수연	미용인, 웨딩과 한복	2016
	4	변종수	연극인	2016
	5	김용철	회계사	2017
	6	한애리	전직기자	2017
	7	양창부	꿈의 설계사	2017
	8	김국현	화장품 만드는 남자	2017

김대호가				
	9	임해리	작가	2017
	10	양병운	제주화교협회	2017
	11	정상섭, 김종필	방송인, 일자리방송부사장	2017
	12	박외순	제주사회운동	2018
	13	현길호	정치인	2018
	14	정상섭	KBSN감독/블록체인과 미디어 산업	2018

### 03

## 제주시 원도심 구술생애사 전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 근현대 미래유산 자료수집을 통한 도시재생 자료 축적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제주연구원과 함께 2019~2020년 2년에 걸쳐 원도심 주민 17명을 기록하여 원도심의 근현대 삶을 조명한 구술생애사 자료집을 펴냄
  - 1930~50년대 출생자로서 원도심과 관련하여 거주하거나 머물면서 주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구술과정에 영상, 음성, 사진 등이 동원되었으며, 이 매체들은 차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할 '기억의 공간' 아카이브 공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원 소스와 함께 2차 가공물인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기억에 말을 걸다』가 제작되었음
  - 원소스를 만드는 일은 구술에서 텍스트화까지 매 단계마다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였으며, 2차 및 3차 가공물의 경우는 작가적 상상력이 동원되는 구간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나 규칙은 없지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제 등에 있어 구술자와 사전 동의가 선행됨

**| 표 6 | 제주시 원도심 구술생애사 목록**

연번	성명	주요 경험	중요 내용
1	여○○	교육계 경험	원도심 교육 관련 이야기
2	고○○	교육계 경험	자취생과 교육 관련 이야기
3	강○○	대동호텔 경영	여성 경영인의 삶



연번	성명	주요 경험	중요 내용
4	오○○	세탁소 태광사 운영	가난과 세탁소 전문기사
5	오○○	수필가	원도심 주요 인물 이야기
6	김○○	경찰 근무 경험	원도심 내 사건 이야기
7	김○○	일도동 동장 및 시의원 경험	원도심 개발 이야기
8	강○○	전화국 교환원 근무 경험	여성 근현대 직업 관련 이야기
9	이○○	제주시 공무원 경험	원도심 개발과 사건 이야기
10	문○○	황금당 50년 운영 경험	칠성로 금은방 황금기 이야기
11	김○○	항공사 화물지점장 경험	원도심 유지 이야기
12	김○○	최원순, 최윤순, 최정숙 집안	최원순, 최윤순 집안 이야기
13	김○○	제주시 공무원 경험	중앙로 지하상가 개발 이야기
14	문○○	나사로 병원 집안, YWCA회장	나사로 병원 관련 이야기
15	양○○	새한병원 간호과장 경험	여성 근현대 직업 관련 이야기
16	김○○	체신공무원 경험, 가보자 아이스케키 집안	먹거리, 놀이문화 관련 이야기
17	현○○	미도여관, 제일기름집 운영 경험	여성 경영인의 삶

## 04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 2019년 제주연구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주민들의 생애사를 통하여 마을 기록화 사업을 전개함

#### | 표기 신흥리 주민 생애사 목록

연번	성명	주요 경험	중요 내용
1	오○○	목수	초가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 민요 등
2	김○○	일본에서 귀향, 해녀	제주4·3과 전쟁, 아버지, 물질, 굴농사 이야기 등
3	김○○	자원지도자	제주4·3, 가족공동묘지, 해방 후 학교, 자원지도자 경험 등

연번	성명	주요 경험	중요 내용
4	김○○	주민	민요, 물, 음식, 해녀의 삶, 의례 등
5	김○○		
6	정○○		
7	고○○	최고령자	호적문제, 신흥리부자, 몰라구장, 고리대금업 등
8	고○○	해녀, 노인회 부회장	남편의 외도, 산후조리, 추렴문화, 채소 음식 등

## 05

### 기타

#### ○ 제주연구원

- 2016년~2018년 제주연구원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를 개최함
- 2019년 제주연구원은 남원읍 신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생애사를 수집함

####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 주민 구술사 등을 수행하여 마을 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함
- 서귀포시 문화도시는 '노지 문화'가 주요 테마인 만큼, 노지 문화를 담아내기 위하여 날 것 그대로의 주민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기획을 마련함

#### ○ 지역 방송

- MBC 제주문화방송에서는 여성생애사를 다룬 'her story' 방영함

## 06

## 쟁점

- 제주지역 주민생애사 수집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제주지역 주민생애사 작업은 민간에서 먼저 인식하고 활발히 수행된 측면이 있으며, 2016년에 이르러서야 공공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됨
- 특히 대졸 교육을 받은 중장년층의 증가는 주민생애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음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없고, 이해가 낮아, 실제 증언, 구술, 구술사, 주민생애사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주민생애사 수집은 매 단계마다 요구되는 방법론이 있음 예를 들면 구술 전 준비, 구술과정, 구술일지, 구술방법론, 텍스트 전환 과정의 방법, 자료의 보관 및 관리, 활용 등 매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제 주민생애사 수집에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음<sup>7)</sup>
  - 스스로 말하게 하는 이 구술채록 작업은 실제로 면담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나타남 아이러니하게 면담자의 능력이 곧 구술자료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특히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불가하다면, 구술자의 이야기를 이해하여 텍스트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음
  - 주민생애사 수집과정은 매 단계마다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도 제주지역의 쟁점 중의 하나임
- 행정의 주민생애사에 대한 이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미약한 편임 상대적으로 제주지역의 사료 자료 및 기록 자료가 적은 상황에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생활 등에 대한 구술사 및 주민생애사는 대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음에도 향토지 혹은 읍면문화지에 사로 잡혀 주민생애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임
  - 제주문화예술훈원에서는 제주지역 주요 문화예술인들의 생애사에 대한 접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수행하지 못함
  - 제주영상산업진흥원은 주민과 마을에 대한 영상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의 이해 부족으로 수행되지 못함
- 지역사회에서 문화산업과의 연계가 아직은 제한적이나,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제주지역의 소재가 제한적이지만 각종 문화콘텐츠에 활용되고 있음 향후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함

7) 구술사 방법론에 대한 쟁점은 전체 구술사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윤택림(1996)을 참조할 것

## V.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01

#### 치유와 문화의 원풍경 조성

- 주민생애사는 치유의 기능을 가진 구술자가 말함으로써 자기 치유적이며, 해석적임 치유의 기능은 젠더, 지역 공간, 계층 등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역할을 함
  - 2019년 안동댐 수몰민 구술생애사 『안동댐 수몰마을 주민대백과』는 9개 마을 106명 수몰민의 기억과 삶을 복원하여 주민생활사를 집대성함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치유와 정체성의 재발견이 이루어짐
  - 1976년 준공된 안동댐은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침 식수난 해결, 레저 산업의 증가 등 물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름 반면 댐건설과 함께 자연환경의 변화, 문화재와 가옥들의 이권, 실향민의 발생 등 원풍경을 잃어버림 주민생애사는 그들의 기억을 통하여 수몰마을의 원풍경을 그려냄
- 주민생애사에서 말하기를 통해 자기의 생애에서 고비 넘기기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생애사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정신건강과도 연결되기도 함
- 주민생애사는 마을의 원풍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 됨 급변하는 마을 공간과 공동체의 변화 속에서 마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원풍경을 그려내고 자원화하는 과정이 됨
  - 마을기록화 사업은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되어 수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음

## 02

## 무궁무진한 문화콘텐츠의 자원

- 주민생애사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는 콘텐츠는 대표적으로 특별한 인물, 특별한 공간에 대한 기억을 가공하여 발간하는 책자 작업임 유명 정치인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인 외에도 우리 시대의 민중의 삶 이야기를 담아냄
  - 『힐튼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휴머니티스, 2021)』은 홈리스행동 생애사기록팀이 2020년 10월부터 1년동안 서울역과 힐튼호텔 사이에 위치한 ‘양동 쪽방촌’ 주민 8명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책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굶주림, 가정폭력, 미래가 없는 삶으로부터 탈출하여 무작정 상경한 이들은 끝없는 노동에도 방 한칸 구할 여력이 없어 거리와 쪽방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가난의 굴레를 증언함<sup>8)</sup>
  - 주민들의 생애사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은 기존 마을지 및 향토지의 변형을 예고하고 있음 『신흥리(제주연구원, 2020)』은 8명의 남원을 신흥리 주민들의 생애사를 통하여 마을공간에 대한 특별한 기억과 경험들을 담아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는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제주연구원과 함께 2020년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 : 기억에 말을 걸다』발간을 통해 원도심 주민 17명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도심 이야기를 기획함
- 책자 외에도 이런 콘텐츠는 마을 박물관 및 마을 기록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조하고 있음
  - 부산 북구 화명2동은 국내 최초의 민관협력 마을기록관인 화명기록관을 만들었음 ‘마을, 기억의 집’이란 주제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모은 마을의 역사와 기록을 전시하기 시작함 유명 인사의 거창한 기록이 아닌 평범한 주민의 개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sup>9)</sup>
  - 주민생애사는 마을 미디어와 연결하여 지역 및 마을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기도 함
- 인문학 강좌의 중요 소재
  -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는 2021년 10월<근현대 영천 다시 읽기>라는 인문학강좌에 ‘구술생애사로 보는 근현대 영천’을 개설하였으며, 구술 채록된 기록들을 통하여 영천의 풍경과 기억들을 소환하여 시민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구성함<sup>10)</sup>

8)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11126508909?OutUrl=daum>)참조함

9)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818462832685>)참조함

10) Queen(<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122>)참조함

### ○ 관광 콘텐츠 사업과의 연계성

- 주민들의 생애사는 마을을 이해하고, 특정 장소를 이해하는데 중요 역할을 함
- 2013년 인천광역시는 배다리 문화마을 내 '생애사길'을 만들 배다리는 한국 근대문화사의 근원지로 오늘날 인천시 금창동 일대를 말하는데, 개항 이후 몰려온 일본인들의 요구로 제물포 해안에 개항장이 조성되면서 이곳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모여살던 곳임 생애사길은 주민들이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임

### ○ 사진 및 영상 매체와의 연계성

- 주민생애사를 담는 과정에는 사진 및 음성·영상이 동원됨 이는 곧 사진 및 음성·영상 자료를 가공하여 2차적인 자료로 활용가능한데, 다큐멘터리, 영상교육 자료, 영상전시 자료 등으로 사용가능함
- 드라마나 영화는 이 소스를 이용한 3차 가공을 할 수 있음 하틀랜드(세라 스마시, 반비 2020)는 자기 생애사를 통해 가난의 구조를 말하는 영화를 선보임 이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짝퉁 망하는 삶에 관하여 이야기함 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한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닌 당시 가족사, 정치사, 경제사, 풍속사를 대변함

- 문화예술환경의 변화와 뉴노멀 관련 인프라가 다양해지면서 문화산업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국민들 삶 깊숙이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발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03

### 공공사업으로 문화뉴딜 수행 가능

- 미국의 뉴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생애사 수집은 일차적으로는 혼돈스런 사회에서 주민 및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공사업으로 지원하여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하며, 이차적으로는 차세대 문화산업의 자원으로 구축하는 산업의 순환구조 체계를 구축함
-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 사회를 맞이하여, 디지털 기술 못지않게 다양한 디지털 스토리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에서
-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1990년대 중반 번역 및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여, 오늘날 누구나 디지털 기반의 원문과 국역의 조선왕조실록에 다가갈 수 있게 됨 이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가들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정치적 주제에서 다양한 주제의 사극 및 퓨전 사극으로 확장되면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음

- 물론 조선시대 역사극 같은 경우에는 역사왜곡 비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남아있는 기록의 양과 질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 압도적이라 창작의 영역이 조금만 들어가도 고종이슈가 터지는 특수성이 있음 그러나 이는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TV드라마 사극 부분에서 콘텐츠와 내용이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장대한 기록유산의 기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이런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생애사 작업은 기록화 과정 및 디지털화 과정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런 콘텐츠 산출에 대한 창작 욕구를 수용할 수 있음

**| 표 8 | 고대~조선시대까지 다룬 사극**

연도	사극 드라마
1977	전설의 고향
1981	대명, 여인열전
1983	개국, 조선왕조5백년
1986	원효
1988	하늘아 하늘아
1989	역사는 흐른다
1990	파천무
1991	-
1992	일출봉, 삼국기
1993	만동
1994	한명회, 야망
1995	장희빈, 서궁, 장녹수
1996	임꺽정, 전설의 고향, 용의 눈물, 조광조
1997	-
1998	왕과 비, 홍길동, 대왕의 길
1999	허준
2000	태조 왕건, 소설 목민심서, 천둥소리
2001	상도, 여인천하, 흥국영
2002	제국의 아침, 장희빈, 태양인 이제마, 어사 박문수, 대망

연도	사극 드라마
2003	대장금, 무인시대, 왕의 여자, 다모
2004	해신, 불멸의 이순신, 토지, 장길산
2005	서동요, 신돈, 직지, 별순검
2006	대조영, 주몽, 황진이, 연개소문
2007	동이, 태왕사신기, 이산, 왕과 나, 한성별곡-正
2008	바람의 화원, 대왕 세종, 일지매
2009	선덕여왕, 탐라는 도다, 천추태후, 자명고, 돌아온 일지매
2010	동이, 추노, 구미호: 여우누이뎐, 근초고왕, 명가, 김수로, 거상 김만덕
2011	뿌리깊은 나무, 광개토대왕, 공주의 남자, 계백, 인수대비, 무사 백동수
2012	대왕의 꿈, 해를 품은 달, 무신, 대풍수, 마의
2013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칼과 꽃, 제왕의 딸 수백향, 기황후, 천명, 구암 허준, 불의 여신 정이, 장옥정 사랑에 살다
2014	비밀의 문, 곡비, 정도전
2015	징비록, 육룡이 나르샤, 하녀들, 장사의 신-객주, 화정
2016	옥중화, 구르미 그린 달빛, 장영실, 임진왜란 1952, 대박
2017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한국사기, 사임당-빛의 일기
2018	백일의 낭군님, , 대군-사랑을 그리다
2019	간택-여인들의 전쟁, 나의 나라, 조선로코-녹두전, 녹두꽃, 해치, 왕이 된 남자
202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철인왕후, 바람과 구름과 비
2021	꽃피면 달 생각하고, 연모, 흥천지, 보쌈-운명을 훔치다, 달이 뜨는 강, 옷소매 붉은 끝동, 어사와 조이, 태종 이방원

- 따라서 원소스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공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음 서울 50+재단처럼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을 모색할 수 있으며, 문자화 및 디지털화 작업은 청년층과 함께 하는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정부의 뉴딜사업의 일환인 ‘데이터 댐’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데이터 댐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댐에 가두어두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수로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속도가 빠른 5G네트워크가 활용됨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과 결합하겠지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서 특히 주민생애사 수집을 데이터 댐과 연결할 수 있음



## 04

## 주민생애사 자료의 디지털 기반 구축 필요

- 주민생애사는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구술을 통하여 채록하고 텍스트화하는 과정으로 텍스트 과정 이후에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을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디지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구축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관리 부재가 미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임
  - 디지털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현대 구술자료관 구축팀이지만, 이 사업단의 경우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한적 기간 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이 문제가 됨
  - 따라서 주민생애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 법 및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의 향토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법에 근거하여 주민생애사 구수채록을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 법에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문화도시 육성,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사업,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실태조사 등이 제시되어 있어, 디지털 기반의 생활문화 자원화 및 기록화와 관련된 부분은 적시되지 못하여 토대가 약함
  - 자치법규 등에서도 대개의 경우 기록관 운영, 민간기록물 수집, 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박물관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생애사 기록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법규를 찾아보기 힘들
  - 주민생애사 구술자료관은 별도 설치·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자료의 통합 제공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선왕조실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구술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조직과 포털이 필요함

## 참고문헌

### ◆ 단행본/논문/보고서

- 『월간 대화(197708)』
- 홀리스 행동 생애사기록팀(2021), 『힐튼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 후마니타스
- 각설이 품바보존회(2017) 『각설이 품바마을 무안 일로지역 주민생애사』
- 거제시 도시재생신문(2021), 〈주민생애사〉
- 국립소록도병원(2012), 『구술사료집 2-자유를 향한 여정, 세상에 내딛는 발걸음』
- 국사편찬위원회(2005), 『구술사료선집-한센병, 고통이 기억과 질병대책』
- 상호마을공동문화조성추진단(2016), 『상호마을 주민생애사-버머리 사람들』
- 서울학 연구소(2000), 『주민생애사를 통해 본 20세기 서울 현대사』
- 세라 스마시(2020) 『하틀랜드』반비
- 신안문화원(2018), 『섬의 생애사』, 전남문화관광재단
- 안동시(2019), 『안동댐 수몰마을 주민대백과』
- 유동우(1984), 『어느 돌맹이의 외침』, 청년사
- 윤구병(1980), 『숨어사는 외톨박이』, 뿌리 깊은 나무
- 윤택림(1996),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2018), 『기억의 책 제주4370』
- 제주4·3연구소(1989),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제주연구원(2020), 『제주시 원도심 문화사 21가지 이야기-기억에 말을 걸다』, - - - 디자인파크
- 제주연구원(2019) 『신흥리』, 한그루
- 제주연구원(2019), 『2019 마을기록화사업-서귀포시 남원읍 신흥 1리 구술채록』
- 제주연구원(2019), 『제주시 원도심 주민생애사 구술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영하 외(2019), 『음식 구술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및 한국정신대연구소(2000), 『(증언집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
- 함한희, 「구술사와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3권 1호
- Nevins, A(1996), "Oral History: How and Why it was Born", in Dunaway, DK & Baum, W K,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Walnut Creek/London/New Delhi, Altamira
- Paul Thompson, Edited by Robert Perks and Alistair Thomson(1998), The oral history reader

## ◆ 온라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구술자료관(<https://mkohaaksackr/IndexMaindo>)
- 공공사업진흥국(<https://kowikipediaorg/wiki/공공사업진흥국>)
- 공공사업진흥국(<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0357a>)
- 공공사업진흥국 연방미술계획(<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0358a>)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11126508909?OutUrl=daum>)
-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818462832685>)
- Queen(<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122>)
- 소도리네트워크 (<https://www.podbbang.com/channels/11717?ucode=K-whTBkheB>)
-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firstPage>)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National Directory of Australia's Oral History Collections)
- 부산지역 구술자료(<https://blognaver.com/goodlife05/222354640042>)
- 브리티쉬 라이브러리 사운드(<https://soundsbluk/Oral-history>)

## ◆ 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 자치법규시스템(<https://www.welisgokr/>)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9-0500 Fax. 064-751-2168  
[www.jri.re.kr](http://www.jri.re.kr)